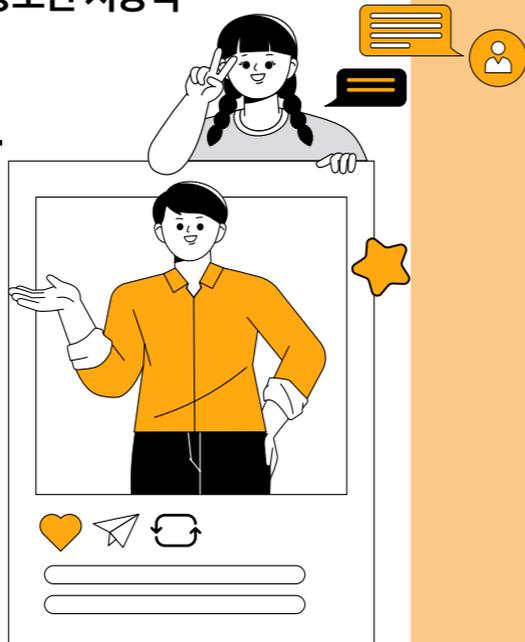




‘나도 지방재정 숨은 크리에이터’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

LOFA, 지방회계를 친근한 교육 콘텐츠로 확산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 이하 공제회)는 8월 1일 본회에서 ‘나도 지방재정 숨은 크리에이터’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숏폼 콘텐츠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자칫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방회계 분야의 실무내용을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산하고, 자치단체 등 일선 현장의 숨은 콘텐츠 실력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리 | 편집실 사진 | 장병국



창의적 아이디어로 풀어낸 회계 이야기

이번 공모전은 4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4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대국민 투표(참여 인원 1,041명)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우수상 2팀(용산구, 전남개발공사)과 우수상 7팀(용산구, 과천시, 담양군,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구, 김포시, 부천시청청소년재단)이 선정됐다. 수상팀에게는 공제회 이사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 수상자는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의 막막했던 경험과 당시의 시행착오를 떠올리며 현장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다”며 “짧지만 핵심을 담은 콘텐츠로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실무 현장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강화

정선용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방회계 분야의 어려운 내용을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창의적이고 기발하게 풀어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이 콘텐츠들이 현장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제회는 1964년 설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에 맞춘 교육 콘텐츠 확대와 회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그간 자치단체의 회계·재무·공유재산·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원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방식 개선과 디지털 기반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